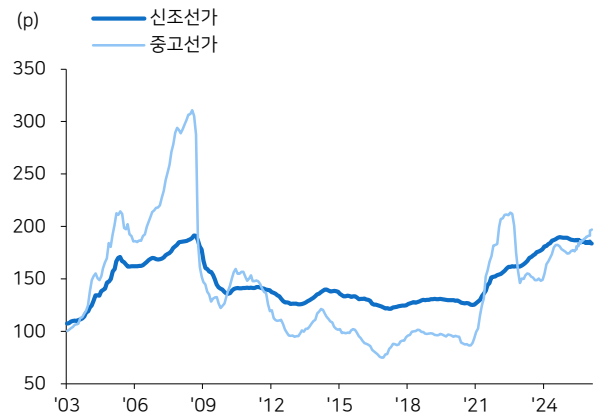
2026. 2. 12 (목)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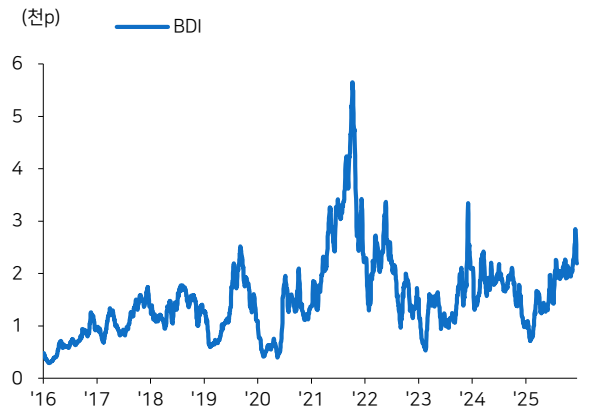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신조선가 183.7p (-0.6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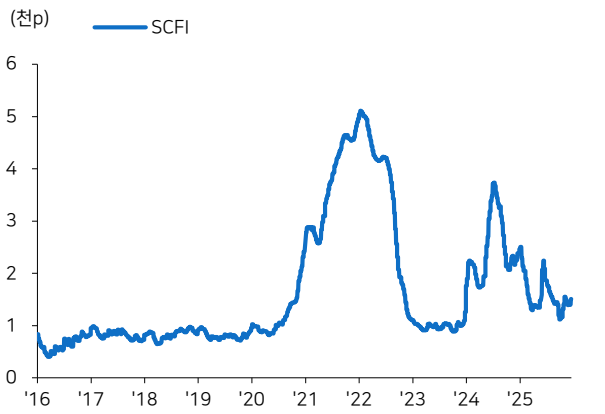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481.0달러 (-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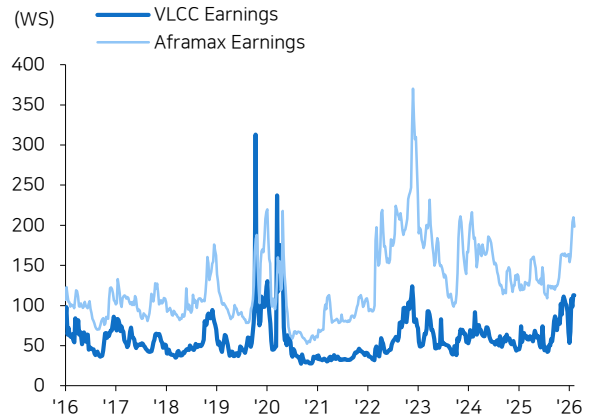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1,882.0p (-13.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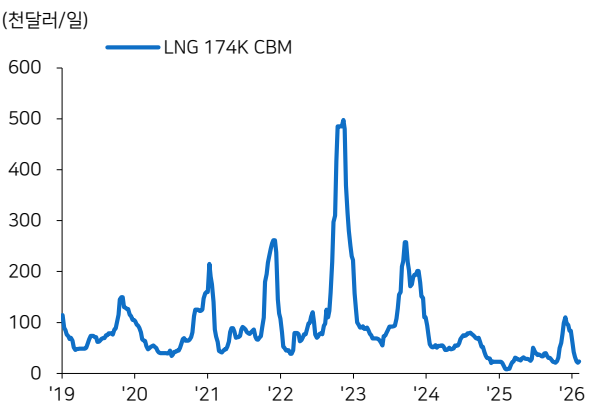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1,266.6p (-50.2p WoW)



VLCC Spot Rate 112.6WS (-0.1p WoW)



LNG Spot 운임 23.8천달러 (+2.8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ONE lines up $4bn bundle of dual-fuelled container ship newbuildings (TradeWinds) https://buly.kr/EzkFfOV

싱가포르 Ocean Network Express(ONE)가 최대 22척(13,000TEU급 최대 12척 · 15,000TEU급 최대 12척) 규모의 LNG 이중연료 네오파나막스 컨테이너선 발주를 추진 중이며, 총 발주 규모는 약 42억달러로 중국 춘절 이전 계약 체결이 예상된다고 보도됨. HD현대와 한화오션, 중국 · 일본 조선소들이 입찰에 참여하고 있으며, 발주는 복수 조선소로 분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해짐. 이번 발주는 용선 비중이 높은 기존 선대를 대체하기 위한 목적이며, ONE은 현재 48척의 신조선을 이미 확보한 상태로 알려짐.

Danaos eyes up to 10 LNG newbuildings for ambitious Alaska project (TradeWinds) https://buly.kr/FLZld4v

미국 Danaos가 Alaska LNG 프로젝트 물량 운송을 위해 최소 6척, 최대 10척의 LNG 운반선이 필요하다고 전망하며, 약 2년 후 신조 발주에 나설 계획이라고 보도됨. 해당 선박들은 프로젝트 FID 이후 2030년 완공 일정에 맞춰 건조돼 약 20년 장기계약으로 운용될 예정으로 전해짐. Danaos는 컨테이너선 호황기 축적한 14억달러 현금을 바탕으로 LNG와 벌크선 신조까지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고 알려짐.

한화오션, 잠수함 납품 지연금 573 억 돌려받는다 (SBS Biz) https://buly.kr/APwY9uh

법원이 장보고-III 1번함(도산 안창호함) 인도 지연과 관련해 한화오션의 책임을 일부만 인정하며, 정부가 부과한 지체상금 약 970억 원 중 약 573억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고 보도됨. 재판부에 따르면 전체 지연 110일 중 77일은 한화오션 귀책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해 33일에 대해서만 책임을 인정했다고 전해짐. 한화오션은 어뢰 기만기 국산화 과정과 기상 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설명하며, 이후 후속함들은 납기를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알려짐.

HD 현대重 vs 한화오션...8 조원 규모 KDDX 사업자 올해 상반기 선정 (디지털데일리) https://buly.kr/4QomoI1

8조원 규모 한국형구축함(KDDX) 사업이 약 2년 지연 끝에 예비설명회를 열고 상세설계 ·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 절차에 착수했으며, 방위사업청은 상반기 내 업체를 확정하고 2032년 말 선도함 인도를 목표로 추진한다고 보도됨. 당초 기본설계 완료 후 수의계약 관행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HD현대중공업의 과거 군사기밀 유출 이력이 쟁점이 되며 지명 경쟁 방식으로 전환돼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간 경쟁이 불가피해진 상황으로 알려짐. 방사청에 따르면 입찰공고 전 주요 요구사항 문서를 사전 열람하도록 해 준비 기간과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고, 지연된 일정을 만회해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릴 계획으로 전해짐.

한화오션, 국내 11 개 기업과 K-잠수함 연합군 구축...사우디·중동시장 정조준 (전자신문) https://buly.kr/5fE5fyi

한화오션이 사우디 월드 디펜스 쇼 2026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등 국내 잠수함 관련 11개 기업과 사우디 · 중동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보도됨. 회사에 따르면 장보고-III 배치-II 선도함 장영실함을 앞세워 사우디 등 안보 수요가 높은 중동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고 전해짐. 한화오션은 전시회 이전부터 현지 업체들과 기술 협력 및 생산 · R&D 인프라를 점검해 왔으며, 이번 MOU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기술 협력과 현지화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알려짐.

HD 현대중공업 '눈독' 들인 카사블랑카 조선소, 중국·스페인 연합 '파상공세' (더구루) https://buly.kr/AarJ8wZ

HD현대중공업이 참여한 모로코 카사블랑카 신조선소 30년 운영권 입찰에서 스페인 · 모로코 · 중국 기업 연합이 종합 조선 거점 육성 계획을 공개하며 경쟁 구도가 본격화됐고, 현재 3개 컨소시엄이 최종 평가 대상에 올랐다고 보도됨. HD현대중공업은 현지 엔지니어링 기업 소마젝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대응 중이며, 프랑스 Naval Group 이탈 이후 유력 후보로 평가받아왔고 모로코 정부와의 협력 기반과 운영 노하우가 강점으로 알려짐. 해당 사업은 약 21만㎡ 부지에 3억달러가 투입돼 244m급 드라이도크와 9,000t급 리프팅 설비를 갖추는 프로젝트로, 아프리카 해양 MRO 시장 주도권을 좌우할 분수령으로 전해짐.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